

내 마음의 주인, 그 근본 핵심만은 잊지 말아야

29면에서 계속

는 돈을 빌려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 보니까 어린이가 거꾸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있다고 그러는데,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아주 막막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한테 듣고 여기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도리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서 마음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나와 나와 돌아다니고, 모두가 한마음인데 지금 돈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또 나까지 거꾸로 서서 이렇게 힘들면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몸과 마음이 다 불편하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곤 막 그냥 사정하다시피 그렇게 맡겨 버렸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서너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스럽게 꿈틀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낱을 때 가서 보니까 바로 섰더라고요. 어린이가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도리는 꽃나무거나 무정물, 생물이 모두 내가 말하는 대로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집안에서 기르는 고양이라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 뜻으로는 알아듣습니다. 자기 혼자서 못 알아듣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듣으니까 그 모두가 연결이 되죠.

또 이런 분도 있었죠. 팔 씻을 날고 아들을 못 낳아서 애를 쓰다가 하도 시부모한테도 들볶이고 모두에게 들볶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개한대 밥을 주면서 하소연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새끼를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집안에서 모두 내 쫓느니 안 내쫓느니 들이쫓느니 하니 어떡하면 좋냐. 나는 나를 도와줄 수 없냐?" 하고 밥을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말합니다. 그 개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죽었냐?'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공부를 대충 해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상하다.' 했는데 그 답부터 어린이가 있어서 낳은 게 아이였답니다. 이렇게 하다못해 낳아다니는 새끼나 동물들도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 인정을 베푸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마음의 도리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마 대사가 사람들 다니는 길에 구렁이가 있어서... 예전에는 요런 소로 길이고, 그냥 망망한 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한자리에 가서 그냥 틀고 앉았으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지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신 달마 대사는 자기가 구렁이가 돼서... 내가 그랬죠?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넣어도 물 한 방울이지 두 방울이 아니라고. 구렁이가 돼서 자

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끌고 가서 다른 데다가 갔다 놓고 오니까 자기 몸이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이제.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달마 대사가 어디가 모자라서 자기의 몸, 집을 뺏기고 딴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란 그 자체가 어느 몸 하나도 자기 몸 아니 되는 게 없는데 구태여 왜 자기 몸을 뺏기고 딴 사람, 도둑놈의 몸을 빌려서 거길 들어갔다고 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듣지 마세요. 자유자재 권을 가진 분이기에 때문에, 즉 부처로, 법신으로, 화신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금방 구렁이가 됐다, 금방 사람이 됐다, 금방 짐승이 됐다, 금방 새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기에 때문에 그렇게 방편을 쓰신 거죠. 그런데 그건 방편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갑니다. 모두.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 들으니까 그게 가늠이 되지 않죠. 그렇듯이 개의 마음에도 그 부인이 너무나

나. "아이, 저 집은 너무 마음이 가난해서 생기는 게 없어." 하고 새들이 안타까워서 지저귀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새 소리라고 듣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 그 모든 것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얘기를 했지만,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태양열을 끌어 쓰듯이,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어떠한 거든지 끌어 쓸 수가 있는 그런 재료가 여러분 앞에 다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 어떤 병이 들어도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 이 네 가지로써 치료도 할 수 있고, 바깥 경계의 모든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하시고 실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실천하십시오.

너밖에 해결할 수 없다.' 고 하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어떠한 용도든지 서슴지 말고 거기에 맡겨 놓고 그것을 실험하고 참구하라. 이것이 바로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과거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공(空)해서 화해서 돌아가는,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이 이치를 모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재료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 됩니다. 각자에게 마음의 능력이 주어졌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 됩니다. 늙었든 젊었든, 옷 갈아입듯이 우리는 되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뿐이지 무슨 지옥이 따로 있어서 데려다 가뉘 놓는 것도 아니고, 천당이 있어서 데려다가 그 천당에서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스럽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자유대권을 가질 때 바로 자유인이요, 만물의 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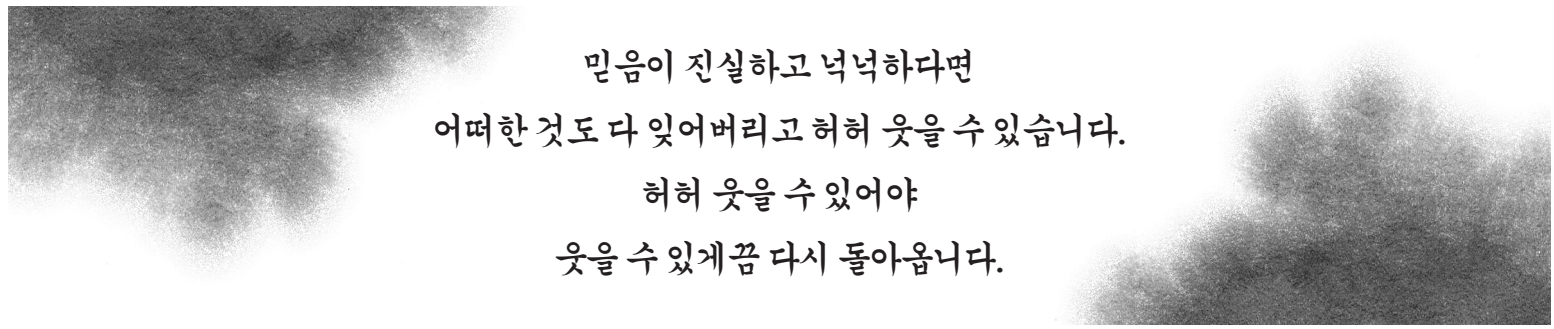
니다. 남의 발자국 딛고서 흉내 내는 거와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한 발 딛고 한 발 옮겨 보는 것, 그것이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체 물리가 터지질 못하고 넓질 못해서 내 마음이 내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벗어나지 될 텐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항상 애고에, 병고에, 유전성 또는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는 찢찢찢 찢매고, 그냥 아무리 말을 해 드려도 그게 실천이 안되고, 아무리 말을 해드려도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은가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사는 데까지 살다가... 사는 날까지 틀림없이 살겠죠. 허허... 살다가 몸을 바꿀 때는 단 모습으로 단 집에도 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서 태어나는 건 좋은데 한 가정에 다섯 식구든 여섯 식구든 모인다고 하더라도 은이면 은끼리 모일 거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얘기하죠. 금이 금방으로 가지 무쇠조리로 가는 법이 없다. 금은 금끼리 모이고 무쇠는 무쇠끼리 모인다. 자연 인과로 인해서, 천 리를 가도 다시 그렇게 모이게끔 돼 있습니다. 한 가정이 강통 가정이면, 금 가정이면, 무쇠 가정이면 그렇게 차원대로, 모두가 자기가 지은 대로 모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정치범들끼리 가두죠? 또 강도는 강도끼리 가두죠? 사기 치는 사람들은 사기죄로다가 사기범들끼리 가두죠? 그렇게 아주 끼리끼리 모여서 가두죠. 그렇듯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세상 물질은 다 끼리끼리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내가 망했으니, 네가 잘못해서 내가 요 꼴 요 모양이야." 하고 한 가정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끼리끼리니까요. 보는 놈도 그놈이요, 그렇게 당하는 놈도 그놈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로 원망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끔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마음을 금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막말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주먹으로 그냥 식구 불평을 쥘어지르는가 하면, 자식들이 잘못돼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곤 그냥 나쁜 거는 온통 부인한테로 가는 수가 많습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한 놈도 그렇게 인과로써 오는 업보가 있죠.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2년 12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넉넉하다면
어떠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허허 웃을 수 있어야
웃을 수 있게끔 다시 돌아옵니다.

안타까우니까 그냥 그 마음에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개는 개대로 모습을 벗고 사람이 되니 인도환생을 했고, 이 사람은 아들을 얻었으니 좋고, 이거는 양면이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이 마음공부를 하시기 되면 나무의 애뜻함도 알 수 있을 거고, 사람들이 애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알 수 있을 거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왜 저렇게 지저귀는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개미 소굴에서 개미들이 왜 저렇게 들끓으며 가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개구리가 개구리 알을 끌고 쪽 기어 올라가요. 그래 '저게 왜 그러냐?' 그리고 그냥 물끄러미 보 기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끌고 간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난데없는 소나기가 그 일대를 다 휩쓸었습니다. 하다못해 개구리도 비 올 거를 알고 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올라다 놓는데, 하다 못해 옥수수도 그 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알고 뿌리를 넓게 잡아서 쓰러지지 않게 자기 몸을 딱 세우는데, 하물며 사람이 내일 일을 생각 안 하고 오늘 텃밭대고 그냥 살 수 있었습니까? 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때에 따라서는 남의 집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

니 모든 것을 알고 실천하면서 자유스럽게 살려면 나부터 알아야, 나의 직결되고 가설된 이 근본부터 알아야 그 줄을 붙잡고 모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근본자리는 보이지도 않고 빛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허공은 안 그렇습니까? 잡히지도 않고 빛깔도 없지만 허공은 있듯이, 마음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역력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쭉거리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마 대사처럼, 유마힐 거사처럼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은... 유마힐 거사가 머리를 안 깎으려고 깎지 않은 게 아닙니다. '머리 깎았든 안 깎았든 이 공부는 할 수 있다' 는 그 표현이고,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과 유마힐 거사가 동일한 시대에 동등하게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바가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 다 나야야 내 병이 낫겠다." 고 한 것도 여러분한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통이 속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 몸통이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하는 공부, 즉 말하면 어떠한 거든지 재료로 삼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일임하면서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입니. 그리고 천당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게 되죠. 자기의 기술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듯이 말입니다. 탈렌트들이 나와서 배역을 맡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가난하게 쓰고 행동을 가난하게 하고, 또는 가난하고 속 좁게 말을 해서 넓게 살지 못한다면,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냥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찰나게 둘러볼 수도 있을 것을, 그냥 온통 가난하게 써서 (컵을 가라기시며) 요 독 안에서 나가질 못하죠. 마음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더 세상을 가난하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넓게, 나아남이 없이, 하나도 버릴 게 없이, 하나도 골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심봉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 심봉 자체가 된다면 돌아가는 이치를 다 그 능력으로써 보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런 거는 시시해서요. 그런 이론적인 거를 말하고 싶질 않아요. 지금 현실에 중요한 것은 실천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평판대장경을 꿰뚫어 안다 하더라도 그건 실천이 될 수가 없습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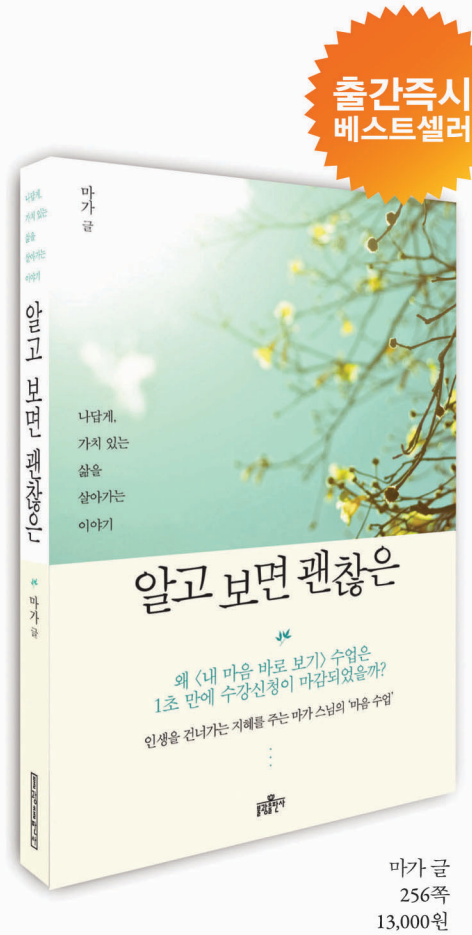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 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마가 스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말을 되찾아주는 힐링 멘토가 되었다. '마구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라고 말하는 스님은 권국의 기업, 학교, 사찰, 관공서를 돌며 자비 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최고 인기 강의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이끌었으며,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와 함께 희망이 되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한국아름추움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정경인 교법사를 맡고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사랑, 관계, 돈, 욕망에 대해 붓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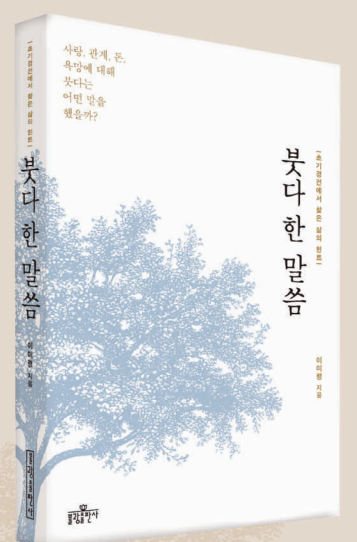
세속적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붓다의 카운슬링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같이 읽고 함께 공감한 초기경전 속 생활의 지혜

[초기경전에서 찾은 삶의 힌트]

붓다 한 말씀

이미령 지음 | 248쪽 | 13,000원



이미령 1964년 강원도 바닷가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교 0교과 교수의 법회에 참여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경전을 읽는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으며, 경전 읽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경전 관련 강의와 필연 필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07년 행원문화재단 행원문화상(영광 분야)을 수상했다. 현재 불광교육원에서 전일강사를 맡고 있으며, 불교계 신문과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밖에 BBS <무명을 밝히고-보리살터의 서재>, YTN <이시자게 마디도 부활엔>을 진행하는 등 불교인사들도 활동 중이다.